

익산시민역사기록관 1주년 성과 공유

유공자 표창·특별전시·출판기념회 등 진행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이 23일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고, 시민과 함께 일군 기록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 주도형 기록문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록을 통해 소통하며 성장해온 1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강경숙 익산시의회 부의장, 시·도의원, 국가기록원 관계자, 운영위원, 기록물 기증자, 시민 도슨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영상 상영과 유공자 표창에 이어 특별전시 관람, 출판기념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보이는 기록수장고 특별전시 △지붕층 특별 전면 개방 △아이들의 일기로 만나는 익산 기록집 출판기념회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보이는 기록수장고 특별전시'에서는 올해 기록관 제1호 기증기록물인 '보은 정몽식 가

문'의 유물들이 전시됐다. 특히 1880년대 유학자 정재호가 받은 '홍패'와 '교지'는 조선 말기 행정과 인사제도를 보여주는 희귀 자료로,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시민 4명이 기증한 학창시절 일기를 모아 제작한 '빛나는 오늘 - 아이들의 일기로 만나는 익산' 출판기념회도 함께 열렸다. 당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익산의 일상이 담긴 이 책은, 평범한 시민의 기록이 지역의 역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줬다. 특히 이번 1주년을 맞아 기록관 지붕층이 내년 2월 22일까지 특별 개방된다. 지붕층은 1930년대 건축양식인 목조 트러스 구조와 맨사드형 지붕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공간으로, 영화 '동주'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는 운동주의 삶과 시를 직접 쓰고 체험할 수 있는 '동주의 방'이 조성돼 있으며, 방문객들은 포토존을 통해 운동주의 감성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마공공원 내 수집재에서는 '익산군이 이리양을 만났을 때'를 주제로 한 민간기록물 수집공모전 기록물 전시가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옥의 정취 속에서 익산의 역사 기록물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故) 이춘기 씨의 가족은 "아버지의 30년 농부 일기를 영인본으로 제작해 전시해준 익산시에 감사하다"며 "자식이 해야 할 일을 시가 대신해준 것 같아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은 지난 1년간 '시민기록도슨트 양성과정', '기록과 함께하는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참여형 기록문화를 선도해 왔다. 시는 앞으로 시민기록활동가 심화교육, 시민과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시민 주도형 기록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기록도시 익산'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완주문화재단은 최근, 완주향토예술평화관에서 '2025 문화이장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전주시 금암도서관, '도서관 내 미술관' 참여 전시 작가 모집

전주시 금암도서관은 오는 29일까지 2026년 '도서관 내 미술관' 사업에 참여할 전시 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도서관 내 미술관' 사업은 도서관 공간을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예술가에게는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도서관에서 일상적으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집 대상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 작가(개인 또는 단체)로, 최근 3년 이내 개인전 또는 단체전 1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사업에 참여한 작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도 모집 규모는 총 10팀이며, 신청 분야는 회화 등 시각예술 전반이다. 선정 작가는 전시비 6만 전액을 활용한 전시 구성이 가능해야 한다. 금암도서관은 선정 작가에게 작품 전시비 10만 원을 정액 지원하고, SNS 홍보 및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 작품 전시에 대한 보험 가입을 지원하며, 작품 운송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희성 기자

완주문화재단, 문화이장 성과공유회 개최

완주문화재단은 최근, 완주향토예술평화관에서 '2025 문화이장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문화이장 1기부터 8기까지의 전체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문화이장 사업이 고민해야 할 방향성과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정책적 자리로 진행됐다. 문화이장들은 각자의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 현장의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며, 문화이장 사업의 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층 전시실에서는 문화이장 1기부터 8기까지의 활동 기록을 담은 사진 전시가 진행되어, 각 기수별 활동과 마을문화의 결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시를 통해 문화이장들이 지역 곳곳에서 만들어 온 문화의 과정과 시간이 고스란히 공유됐다. 2층 공연장에서는 문화이장이 활동 중인 공연단체의 무대와 함께, 문화이장 활동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문화이장들은 직접 경험한 활동 사례를 통해 마을 문화 활동의 과정과 성과, 그리고 현장에서 느낀 의미를 전하며 공감의 시간을 나눴다. 또한 이번 행사는 문화이장 1기부터 8기까지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의 장으로서도 의미를 더했다. 이를 통해 기수 간 경험이 연결되고, 향후 협업과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의 계기가 마련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9)

사람을 죽이다니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용대가 돌아왔어." 저녁에 밖을 나갔다가 돌아온 강병도가 신동택에게 마지막에 말했다. "뛰러가고요? 용대 삼촌이 돌아왔다고요?" 신동택도 목소리를 죽여 되물었다. "경복 읍진에서 전투를 하다가 부상을 입고 대위로 전역했다는 거야. 그동안 병원에 있다가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경향에 전주로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는군." "그래도 지금은 위험할 텐데요. 우리 마을이야 용대 삼촌을 어떻게 하지는 않지만 황전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용대가 이곳에 있기엔 위험하지." 침울한 얼굴을 하고 있던 강병도는 남쪽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남준아, 너 잠깐 용대 삼촌 집에 갔다 오거라."

강병도의 요구에 남준은 왜 가야 하느냐 묻지 않았다. 강병도의 일이라면 뭐가 숨겨야 할 일일 것이다. 강병도의 집에 가서 강용대는 집을 꾸리고 있었다. 강용대는 마을을 떠날 모양이었다. "남준이가 길잡이를 해주어야겠다." "지금 떠나시게요?" 강용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장에서 인민군 정규군하고 내무서 직원들이 떠났다. 우리 국군하고 경찰이 들어올 때까지 잠시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때까지 잘 버텨야 한다." 배낭을 멘 강용대는 집에서 대기했고 남준은 경찰병으로 골목을 살피면서 나아갔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나간 뒤 되돌아와서 이상없음을 강용대에게 알렸다. 강용대가 마을을 다 빠져나가 무장음을 이룰 때까지 남준은 강용대의 길을 정찰해줬다. 9월 말경, 인민군과 내무서원들이 떠났지만 국군과 경찰은 아직 고창 지역에 입성하지 못했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떠나도 좌익세력이 여전히 고창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도 곧 이 지역에서 떠나거나 으스스한 곳으로 숨어들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피의 잔치를 시작했다. 좌익세력은 그들 세상이 오면 그들을 아니꼽게 봤던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그 사업이 일 순위가 아니었다. 낙동강 전선이 교착상태였으므로 통일과업을 완수하는 게 제일의 목표였던 것이다. 북쪽 사람들 눈치를 보며 칼을 숨기고 있던 좌익세력은 북쪽 사람들이 떠나자 숨기고 있던 칼을 꺼내들었던 것이다. 인민군이 떠나고 국군이 입성하지 않은 고창 지역은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었다. 힘을 가진 자들이 곧 법이었다. 고창 곳곳 좌익 완장을 차고 있던 사람들은 그동안 그들을 고깝게 여기던 사람들을 찾아내 죽이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해!" 비석골을 다녀온 신동택이 사립문을 열고 들어와 급히 토방을 올라서며 숨넘어가는 소리를 했다. "왜 그래?" 강병도가 놀란 눈을 하고는 신동택에게 물었다. "비석골, 비석골에서..... 무, 물 좀....." 옆에 있던 남준은 얼른 부엌에서 물을 떠와 신동택에게 줬다. "비석골에서 뭐가 어찌했다고?" 물을 마시고 가슴을 치며 숨을 고른 신동택이 정신이 돌아왔는지 강병도와 남준을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비석골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 왔어요." "사람을 죽이다니, 누가 누구를?" "빨간 완장을 차고 있는 걸 보니 좌익 사람들이구나 봐요. 그 사람들이 똥덩이하고 죽창으로 마을 공터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고 찌르고 해서 죽여 버리더라고요. 한 열 명은 죽였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던지....." "완장 찬 사람들은 누구야? 죽은 사람들은 누구고?"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